



2026. 8. 6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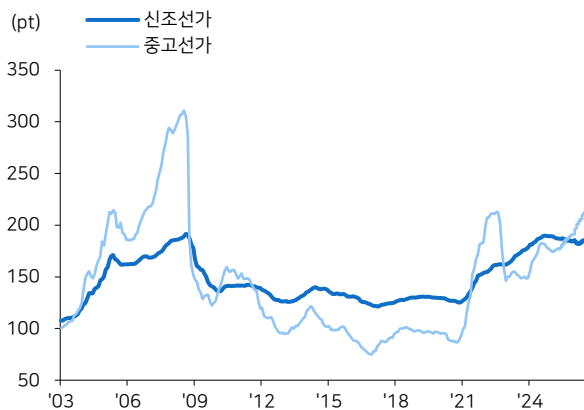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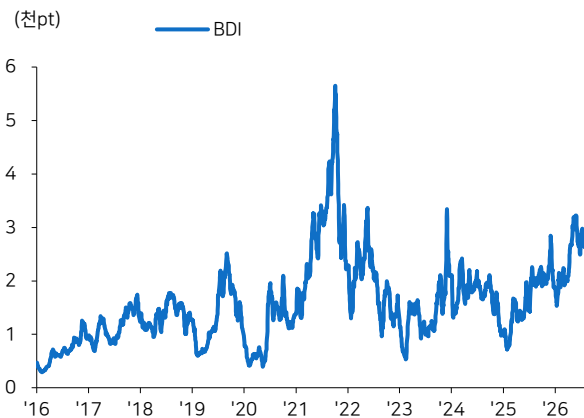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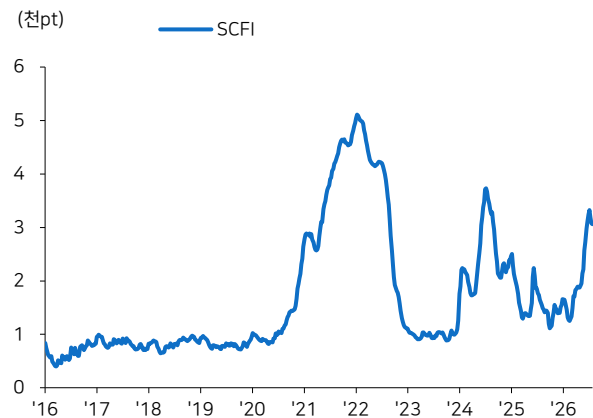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36.0p (+9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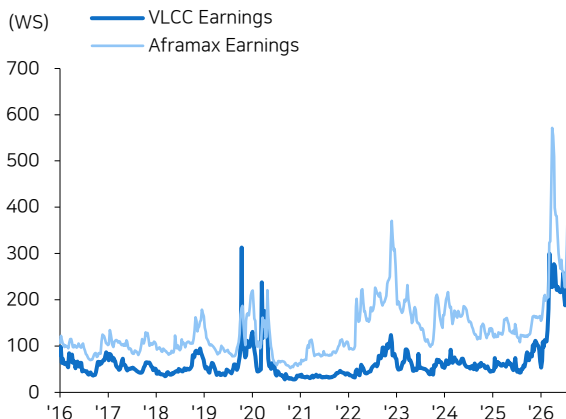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06.0(+143.0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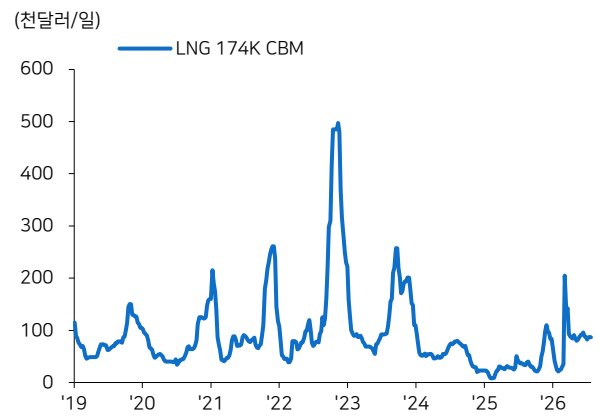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54.9WS (+26.8p WoW)



LNG Spot 운임

79.8천달러 (-6.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 美헨팅턴 잉걸스에 '지능형 용접 시스템' 전수...협력 속도 (서울경제)

<https://zrr.kr/P0f8wK>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헨팅턴 잉걸스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며, 미시시피주 잉걸스 조선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첫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고 보도됨. HD현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룹 내 조선소에서 검증된 자사의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도입하여 용접 자동화와 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디지털 조선소 구축 및 함정 건조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짐. 양사는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미 해군 함정 건조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범 사례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며, HD현대는 MRO부터 조선소 현대화까지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다각도로 넓혀가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아르헨티나 잠수함 MRO 패키지 제안...페루 '시마'와 통합 구축 (더구루)

<https://zrr.kr/5IDRmD>

HD현대중공업이 페루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페루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한 중남미 국가 대상 잠수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 해군의 잠수함 정비 수요를 겨냥해 HD현대가 설계와 자재 패키지를 공급하고 시마조선소가 건조 및 정비를 맡는 공동 MRO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짐. 이미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 건조 사업을 수주해 2029년까지 인도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1,500톤급 중형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에 이어 올해 3분기 내 잠수함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특수선 사업 영역을 중남미로 적극 확장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 美 뉴저지 조선 생산거점 확보 최종 무산...대체 부지 찾아 '플랜 B' 가동 (더구루)

<https://zrr.kr/SSgSuh>

한화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거점 확장을 위해 추진되던 뉴저지주 폴스보로 항만 시설 임대권 확보가 기존 항만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 및 갈등 끝에 최종 무산됐다고 보도됨. 당초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상미사일시험계측선(MRIV) 수주 등에 따른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폴스보로 부지 인계를 추진했으나, 항만 운영사인 홀트 로지스틱스의 반발과 소송으로 지난 3월 계약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한화는 뉴저지 투자 계획을 접고 미국 남부 주들이 제시한 대안 부지와 투자 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플랜 B' 가동에 나선다고 알려짐.

'新먹거리' 찾는 한화오션, 조선 넘어 에너지로 '확장' (아시아투데이)

<https://zrr.kr/GHePJ0>

한화오션이 조선·방산을 넘어 LNG 발전소 EPC와 해상풍력 개발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영역을 확충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보도됨. 최근 5,279억 원 규모의 여수 에코에너지 LNG 집단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 EPC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도 개발 총괄 및 주관사로 참여하며 밸류체인을 넓히고 있다고 전해짐. 특히 자체 건조 중인 차세대 해상풍력설치선(WTIV)을 투입해 조선업 역량과 시너지를 내고, 향후 수소·암모니아를 아우르는 그린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AI 데이터센터 큰손 농칠라... 신발끈 조여매는 K 선박엔진 (조선비즈)

<https://zrr.kr/B9ScmF>

AI 데이터센터용 발전 엔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 등 선박엔진 생산업체들이 육상 발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울산과 목포 공장 등의 '힘센엔진' 생산체계를 용도별로 전문화하여 대출력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미국 아페리온에너지그룹과 6,271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해짐. 한화엔진 역시 4행정 중속엔진 연간 최대 180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첫 엔진 조립을 시작하며 육상 발전용 시장에 본격 가세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용 엔진의 사업화 속도가 양사의 향후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가를 핵심 변수로 알려짐.

Leading Australian LNG projects hit by tighter environmental rules (Upstream)

<https://zrr.kr/5zkbgi>

호주 노던테리토리 환경보호청(NT EPA)이 Inpex의 Ichthys LNG와 Santos가 운영하는 Darwin LNG 등 주요 LNG 프로젝트 2곳에 대한 대기 배출 가이드라인 검토를 최종 완료했다고 보도됨. Ichthys LNG 시설의 과거 배출량 과소 신고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검토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배출 한도 설정, 연속 모니터링 장비 설치 의무화, 5년 주기의 오염 방지 모범사례 검증 감사 등 총 23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됐다고 전해짐. NT EPA의 권고사항은 이달 초안 작성 과정을 거쳐 오는 10업체 협의를 거친 뒤 올해 12월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Darwin 대기권 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